

## ESD PEAR 성명서

2022년 8월 30일

Washington 주는 공평을 추구하고 인종주의를 반대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갑니다. 이러한 미래는 "Washington의 모든 이들이 번영을 위한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기회, 권한 및 자원에 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미래"를 의미합니다. 이는 Jay Inslee 주지사가 행정명령 22-04를 통해 작성한 지침이며 주정부의 공평 추구 반인종주의(PEAR) 이니셔티브에 대한 비전입니다. 이 비전은 말이 아니라 주정부의 결정과 행동을 통해 드러나는 진정한 헌신 속에 드러납니다.

저 역시 경영진 및 고용안정부(ESD) 전체 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미래를 위한 이 비전에 깊이 헌신하고 있습니다.

당 기관의 프로그램은 모든 Washingtonians를 위한 경제 안정을 이루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. 프로그램을 통해 구직자와 고용주를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, 사람들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기술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, 개인과 가족에게 꼭 필요한 유급 휴가와 장기 간병 기간을 제공하고, 실직 시 청구서를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
저희는 이러한 지원이 공평하게 제공되지 않아왔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.

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모두가 아닌 일부를 위한 특권, 기회, 권한을 강화하도록 구축된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. ESD는 장기적으로 이 작업에 전념하고 있습니다. 또한 프로그램과 시스템의 불공평성으로 인해 현재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에게 즉각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변화를 위한 모든 기회를 찾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

PEAR 계획을 위한 전념 외에도 ESD는 다음을 약속합니다.

- **ESD의 모든 업무의 중심은 커뮤니티의 목소리입니다.** 즉, 강력한 커뮤니티 참여 전략을 수립하여 서비스 이용을 막는 장벽을 제거하고 서비스를 받는 이들을 위해 작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.

- **주 파트너 및 지역 파트너와 협력하여 공평 추구 및 반인종주의를 성취하는 데 참여합니다.** 파트너와 더 깊고, 더 강하고, 더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PEAR 업무에 대한 커뮤니티의 헌신을 향상시킵니다.
- **기관 비전을 PEAR 비전으로 전환하여** 가치, 의사 결정, 전략 및 문화 모두 가시적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사람들이 전화로 연락할 때 우리의 비전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. 사람들이 웹사이트를 탐색하고 혜택을 신청할 때 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에 우리의 비전이 표시됩니다.
- **PEAR의 우선순위와 기관의 PEAR 계획을 반영하기 위해 기관의 전략 계획을 개발하고** 지속적으로 조정합니다.
- **부서 수준의 전략적 계획과 기관 전체 예산 개발 업무에 PEAR의 우선순위와 원칙을 반영합니다.** 이를 통해 기관의 모든 의사 결정 단계에서 공평 추구 및 반인종주의 업무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.
- **당 기관에서 근무하는 역사적으로 소외된 계층 출신 직원을 위해 투자합니다.** 즉, 경력 개발 및 멘토링 확대, 리더가 직원의 의견을 경청하고 육성할 책임, 장벽 제거, 직원 채용 및 유지에 집중하여 직원들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커뮤니티를 반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.

저는 이러한 변화에 기대를 걸고 있으며 주 정부의 변화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. 현재 상황으로 인해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. 오늘 그리고 매일 우리 업무의 역할은 중요합니다. ESD는 보다 공평한 미래를 실현하는 데 일조하기 위해 PEAR의 활동과 비전에 전념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.

[Signature]  
Cami Feek  
고용 안정부 국장